

• 요한복음 15:5; 에베소서 4:1-6

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연결된 가지만이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교제하며 소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배나 기도 시간 외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께 늘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며, 그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분의 마음에 반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확장되려 할 때, 자격과 소양을 평가하는 심사 위원처럼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일을 위해 부름 받았습시다. 교회의 사명은 건물과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고,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성령’ 아래 ‘한마음’으로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뜻을 같이하며 한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독특한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소통할 때, 한 성령을 모신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DNA는 그 어떤 학연과 지연과 혈연보다도 강력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 ① 나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이 드러납니까?
- ② 성령의 공동체와 한마음 한뜻을 이루고 있습니까?